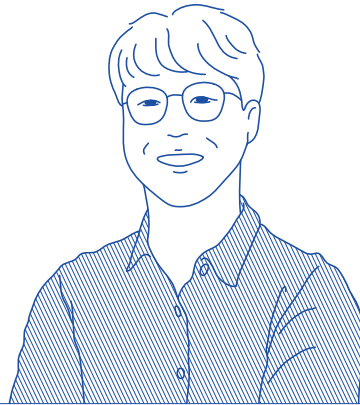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7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생명은 나눠야 창조된다

김종수 안토니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창세기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흙에 불과했던 존재가 숨을 통해 생명체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생명은 숨을 통해 창조됐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우리 또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물입니다. 하느님이 숨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듯이 우리도 조혈모세포기증 등의 나눔으로 숨을 불어넣어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성체성사를 사는 사람들’은 ‘생명은 나눠야 창조된다’는 믿음으로 생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학생 김종수 안토니오(홍익대 경영학과, 4년)씨의 이야기입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2011년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군 시절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캠퍼스 내에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들을 모집해왔습니다. 김종수씨는 그동안 봉사자로 활동한 일이 생명의 거룩함과 숭고함에 대해 다시 묵상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조혈모세포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의 경우,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간에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간에는 확률이 25%로 높아지지만 형제가 많지 않은 요즘에는 환자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 더 힘든 환경이 됐습니다.

“고통받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아직 저와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오지 않아 기증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혹시 연락이 온다면 기증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는 백혈병을 앓고 있던 친구 동생을 보며 환자들과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기증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간절함을 알기에 가톨릭학생회 선후배들과 함께 헌혈증 50장을 모아 친구에게 전해주고 성분헌혈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쫓겨난 빵이 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의 영적, 물질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체성사로 초대하시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14,16)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월간 가톨릭 비타폰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펼칩니다.** 직장에서 또는 소소한 일상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친구 동생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애절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인간. 이 얼마나 숭고하며 멋진 일인가요. 저는 창조하는 인간의 힘을 믿습니다. 작은 용기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통해 환자분과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 웃음 또한 새로운 창조 아닐까요?”

조혈모세포기증 신청과 문의는 가톨릭정보문화·생명나눔센터 에서

활동내용

- 장기기증 상담 및 접수
- 조혈모세포기증 상담 및 접수
- 기타 생명나눔 관련 상담
- 명동성당 및 성지 안내(주말), 교회정보 제공, 외국어 봉사자 운영(주말/영어, 일어,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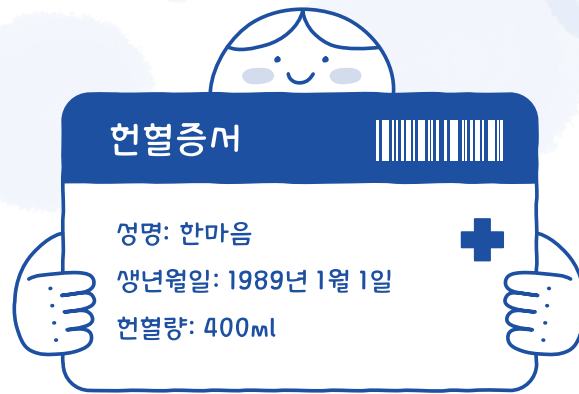
운영시간

월, 화 10:00~18:30
수~일 10:00~19:00
※ 법정공휴일 휴무(일요일 제외)
※ 점심시간 13:00~14:00

장소 명동성당 1898광장 지하 1층

문의 1599-생명살이(3042)

잠자고 있는 헌혈증, 누군가에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왕십리에 사는 석현(가명)이
엄마입니다. 석현이는 10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지금까지 꾸준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에
심장 혈관이 막혀 시술을 해야 하지만 혈소판 수치가
계속 감소하여 혈장교환술을 지속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아이 아버지도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1급판정을 받고 지금은 요양원에 있는 상황인데다,
석현이도 투병을 오래 하게 되어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혼자 버는 돈으로 남편과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데 치료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혈장교환술을 받으려면 많은 양의 수혈을 해야하는데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비용을 공제해준다고 해서 본부로
헌혈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부로 헌혈증 지원을 요청하신 한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헌혈증은 수혈에 드는 비용 중 건강보험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는
자기 부담금 일부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석현이와 같이 많은 양의
수혈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1989년부터 헌혈운동과 헌혈증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헌혈증은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헌혈과 헌혈증이 사람을 살린다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가지고 계신 헌혈증을 본부로
보내주세요. 또한, 주위에 헌혈증이 필요한 환우들이 있다면
본부를 알려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우들에게 헌혈증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헌혈증 지원 안내

지원대상	나이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지원내용	헌혈증 1인 200매까지 지원 / 필요시 재신청 가능
지원절차	지원신청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지원
신청서류	헌혈증지신청서, 진단서, 추천서 (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 에서 다운로드)
문의	생명운동팀 환우지원사업 담당 02)727-2293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2015년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자살 사망자는 1만3513명으로 하루에 44명꼴로 평균 33분에 한 명씩 숨지는 셈입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54.8명)은 OECD 평균(18.4명)의 세 배에 달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도 문제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생은 108명입니다. 지난해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겐 이러한 통계가 그냥 숫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기나 전화기에 새겨진 수를 뜻하는 기호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상상력을 갖고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며 누군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과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헤어진 사람들, 충격과 고통에 빠졌지만 자신의 잘못이란 생각에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내미는 손 하나의 힘은 그토록 큰 것이고, 함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걷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 함께 하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와 거두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자살로 가족을 떠나보낸 문지은 작가의 저서 '남은 자들을 위한 길, 800km'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살예방은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 바로 자살예방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친 소중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어 주세요. 숨죽여 흐느끼는 눈물, 작은 소리,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작은 몸짓을 살피며 자살 없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요.

2017 자살 유가족을 위한 ‘해바라기 슬픔돌봄 모임’ 안내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의 ‘해바라기 슬픔돌봄 모임’은 소중한 가족을 자살로 잃은 아픔과 상처를 돌보며 본연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상실을 나누고 위로와 지지를 얻는 모임 및 개인상담(주 1회, 50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면접 후 모임 및 상담결정, 상담비 무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www.3079.or.kr



참여대상	가족을 자살로 잃은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연제	2017년 10월 18일 - 12월 6일 (매주 수요일, 8회기), 14:00~16:00
어디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신청	2017년 10월 12일까지 (선착순 10명)
참가비	무료
문의 및 신청	02)2265-2952 (월~금, 10시~17시)

자살생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살생각과 관련해 ‘즉시 위기상담’이 필요하시면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운영)를 이용해 주시고,
면접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센터 02)318-3079로 문의해 주세요.

- ① 위기상담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
- ② 전화상담 1599-3079 (월~금, 10시~17시)
- ③ 면접상담 02)318-3079 (월~금, 10시~16시)

※ 대상: 자살생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상담비 무료 /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 1회 50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www.3079.or.kr

생애첫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람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외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1005-684-077777
-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454-005324-13-04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첫 번째 기부

강수진 마리스텔라 2016.08.12생 父 강호진 母 조아현 | **강유준** 2015.07.29생 父 강현우 母 김용정 | **금다윤 글라라** 2016.07.21생 父 금대중 母 윤혜은 | **김도연 엘리사벳** 2017.07.15생 父 김준식 母 유승희 | **김민서** 2016.07.20생 父 김태현 母 김재림 | **김민서 세레자요한** 2016.07.02생 父 김현진 母 양정윤 | **김서윤 미카엘라** 2016.06.09생 父 김용재 母 이현정 | **김수현 마르티노** 2016.06.16생 父 김중오 母 류혜정 | **김슬아** 2016.07.15생 父 김준영 母 김재남 | **김시우 도미니코** 2016.08.14생 父 김현철 母 심은혜 | **김서예 바실리아** 2001.01.06생 父 김준현 母 노자영 | **김재원** 2016.08.12생 父 김용생 母 김민정 | **김지우** 2016.08.05생 父 김태호 母 이재영 | **김지원 라엘** 2017.03.28생 父 김정철 母 김은정 | **류하린** 2016.08.24생 父 류장원 母 임현아 | **명다슬** 2016.09.02생 父 명훈주 母 한정희 | **박서우** 2011.07.20생 父 박현석 母 이진혜 | **박솔미 스텔라** 2015.12.23생 父 박성혁 母 황지영 | **박연준** 2016.07.19생 父 박문수 母 정현경 | **박영서** 2016.08.11생 父 박인호 母 이유나 | **박재인** 2017.04.07생 父 박철수 母 조근혜 | **박지현** 2016.07.26생 父 박준석 母 윤홍경 | **박태준** 2015.07.08생 父 박현석 母 이진혜 | **박해솔** 2017.06.07생 父 박영든 母 홍선진 | **사유진** 2017.03.29생 父 사장빈 母 두슬기 | **송시윤 이나시오** 2013.09.22생 父 송지훈 母 윤선애 | **송유준** 2016.06.15생 父 송재용 母 이보람 | **송지아** 2016.07.08생 父 송경환 母 송양지 | **신유진 도미니코** 2015.08.02생 父 신대용 母 신지안 | **안진호 사도요한** 2016.07.22생 父 안재형 母 박혜선 | **양재원 스텔라** 2012.08.04생 父 양정훈 母 남지수 | **양재윤** 2013.11.02생 父 양정훈 母 남지수 | **양지원** 2014.07.21생 父 양한 母 김보미 | **오선호** 2016.09.21생 父 오강민 母 이혜정 | **오채민** 2016.08.03생 父 오법택 母 강고은 | **오하율** 2017.06.28생 父 오임경 母 고영심 | **오해린 캐서린** 2017.03.17생 父 오상민 母 김예은 | **우재용** 2016.08.01생 父 우승한 母 홍혜희 | **원지호** 2017.04.10생 父 원종식 母 정은경 | **이강민우 베네딕토** 2007.03.23생 父 이상민 母 강현주 | **이강민주 아가페** 2005.02.15생 父 이상민 母 강현주 | **이로운** 2016.07.01생 父 이준수 母 김해진 | **이서우 베나소** 2016.08.01생 父 이성중 母 김신혜 | **이서준 요한** 2015.07.21생 父 이원준 母 이영빈 | **이아윤 엘마** 2016.03.12생 父 이승호 母 이윤서 | **이윤성** 2016.07.04생 父 이혁제 母 신지현 | **이재하** 2017.04.26생 父 이주현 母 최민재 | **이태훈** 2016.05.14생 父 이경석 母 이희은 | **이하니 마리스텔라** 2016.07.25생 父 이준영 母 최현하 | **이현진 루카** 2014.07.03생 父 이웅석 母 최지영 | **임지원** 2016.08.27생 父 임충민 母 고혜영 | **전서윤** 2017.05.02생 父 전형물 母 김선희 | **정승윤 에이든** 2014.07.10생 父 정현욱 母 민정화 | **정아윤** 2016.08.01생 父 정진우 母 임이라 | **정아인** 2016.08.01생 父 정진우 母 임이라 | **정우진 라파엘** 2016.09.19생 父 정성욱 母 이현숙 | **정윤호** 2016.07.20생 父 정승원 母 이주미 | **정트리스탄** 2015.08.04생 父 임재민 母 토살로 이네스 | **최예원** 2016.09.18생 父 최현욱 母 정재미 | **최윤아 마리아** 2014.07.18생 父 최은호 母 서유리 | **최지유** 2016.07.10생 父 최고야 母 차현진 | **현이든** 2017.04.11생 父 현정주 母 이교연 | **호아(태영)** 2017.07.19생 父 오민호 母 경미현 | **황서윤 스텔라** 2015.05.19생 父 황성욱 母 박주영 | **황선재** 2014.07.24생 父 황석준 母 최세라

두 번째 기부

권지호 이레네 2015.07.08생 父 권준하 母 김민선 | **김민서 클레어** 2016.08.12생 父 김현섭 母 최지희 | **김시은 베드로** 2016.07.27생 父 김춘식 母 김혜연 | **김연준 사도요한** 2013.07.11생 父 김창호 母 남주연 | **김재원 마르티노** 2015.07.01생 父 김일구 母 최민정 | **김택진 바오로** 2015.06.30생 父 김재호 母 이영혜 | **문채민** 2016.07.12생 父 문지호 母 황정원 | **박다예** 2015.04.03생 父 박인석 母 신세화 | **박성호** 2016.04.30생 父 박성산 母 양하나 | **서수혁 프란치스코** 2014.06.30생 父 서동삼 母 이정은 | **이가윤 안나** 2015.07.24생 父 이규연 母 이진미 | **이도현 라파엘** 2015.08.05생 父 이문호 母 박진영 | **이수윤 베아트리체** 2012.07.30생 父 이관수 母 이지영 | **이승민 니콜라오** 2015.07.09생 父 이도형 母 김하선 | **이시은** 2015.07.25생 父 이승철 母 강혜정 | **이연호 라파엘라** 2015.07.06생 父 이경훈 母 이수진 | **이지민** 2015.07.16생 父 이웅세 母 조은영 | **이지민 빅토리아** 2015.07.31생 父 이진욱 母 한아름 | **이해인 라파엘** 2017.07.06생 父 이경훈 母 이수진 | **임은진 베로니카** 2012.07.11생 父 임정환 母 배수현 | **정하윤 베로니카** 2015.06.27생 父 정찬교 母 최해인 | **최승재 스텔라** 2014.08.04생 父 최재철 母 박은희 | **최주안 레오** 2016.11.22생 父 최영민 母 김연주 | **홍지한 베드로** 2016.07.27생 父 홍한솔 母 김지연

세 번째 기부

김해은 바오로 2014.06.30생 父 김성훈 母 황하나 | **김현우 사도요한** 2009.07.29생 父 김동희 母 김민정 | **윤분도 베네딕토** 2013.07.05생 父 윤장희 母 안정아 | **윤수환 스테파노** 2011.06.17생 父 윤장희 母 안정아 | **윤요한 사도요한** 2008.06.03생 父 윤장희 母 안정아 | **이도담 리디아** 2013.08.03생 母 강유진 | **장윤** 2013.08.20생 父 장승환 母 주소윤 | **현이안 라파엘** 2014.07.14생 父 현정주 母 이교연

생일 기부

장은지 루피아 1986.07.13생

함께하는 사회사목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미사 안내

서울대교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목)에는 환경사목위원회 주관으로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주제 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진행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31일(목), 19시
장소	명동대성당
주제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신명 30, 19)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환경사목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습니다. 나눔가게·기업 신청 시 안내자료를 보내드리고, 1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 ※ 현재 약 10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40호점	경기 광명 광명동 행정안전증개사
241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서서울 신평
242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김치치킨
243호점	서울 강북 도봉로 (주)서윤홀썬
244호점	서울 강남 신사동 세븐블레스(7bless)
245호점	서울 노원 동일로 워킹온더클라우드
246호점	서울 서초 서초동 우노스뮤직엔리페어
247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비엔나 안경
248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가람 호프
249호점	서울 성동 행당동 황금가든
250호점	경기 안성 서인동 김창숙부띠끄
251호점	서울 동대문 한천로 카페다미안
252호점	경기 화성 내항로 제일축산
253호점	경기 의정부 동일로 수락산편백원
254호점	경북 영주 번영로 롯데리아 영주점
255호점	서울 강남 일원동 삼성정문약국
256호점	서울 종랑 망우로 월드세탁소
257호점	서울 서대문 충정로 e-아름다운치과
258호점	서울 마포 상암산로 휴아시스
259호점	경기 성남 수정로 612 여학원
260호점	서울 중랑 검재로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261호점	경기 광명 오리로 (주)비타메드
262호점	제주 남광로 제주 해밀
263호점	경기 인천 다남로 카페 로즈호텔라정원
264호점	서울 은평 증산로 (주)한강FNT
265호점	서울 성동 금호로 화림식당
266호점	서울 마포 와우산로 에그리하우스 고시원
267호점	서울 구로 개봉로 오달소
268호점	서울 강남 학동로 루트헬치과
269호점	서울 서초 양재대로 서초우솔해법법파수학
270호점	서울 서초 효령로 와일드어바웃
271호점	서울 구로 남부순환로 광명수산

※ 기준: 2016. 10. ~ 2017. 7.

100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54,516명

2017. 8. 8.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 참여 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140-001-982286
국민은행 083-01-0309-453
KEB하나은행 061-22-03709-4
농협 386-01-015833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문의: 1599-생명살이(3042)